중국 전략

중국 양회, ‘AI 지능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중국전략 담당 성연주
T.02)2004-9871
seung.yeon-ju@shinyoung.com

지난 3월 12일 폐막한 중국 양회(정협, 전인대). 딥시크 V4 발표 예정(4월로 연기) 등 화젯거리로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됐으나, 예상보다 조용히 지나감. 중동 리스크 확산 우려가 발목을 잡았고, 미·중 정상회담도 연기되면서(5월 14일) 중국 정부도 이번 기회에 경제/산업 시스템 재정립 시도.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2026년 정부업무보고서와 ‘15차5개년 계획(2026년~2030년)’ 내용을 살펴보면, ‘내수’보다는 ‘첨단기술’ 투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됐고, ‘AI 지능형 경제(smart economy)’를 처음으로 언급함. 즉 2035년까지 경제/사회 전분야에 AI 기술 100% 적용 목표. 기존 중국 경제 성장 엔진인 부동산 중심의 내수/전통 인프라 투자는 잠시 미뤄두고, AI인프라와 민생 분야에 정부 자원을 집중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Content

중국 양회, 'AI 지능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4

Ⅰ. 중국 재정예산/목표치 비교 - '과학기술/에너지' 집중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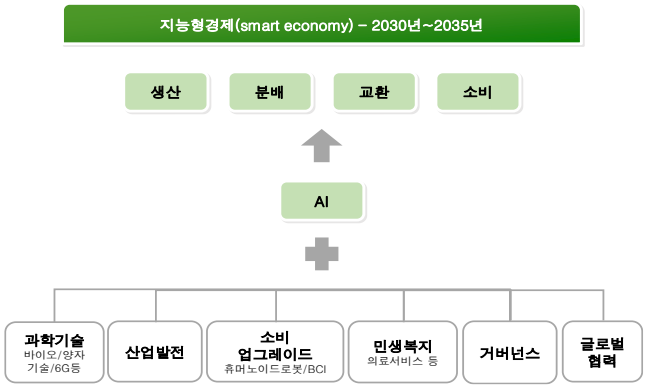
Ⅱ. 중국 양회, 'AI 지능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9

Ⅲ. 중국 증시, 기술주 추종 인덱스 ETF 주목 15

Key Graph

중국 정부, 2035년
'AI 지능형 경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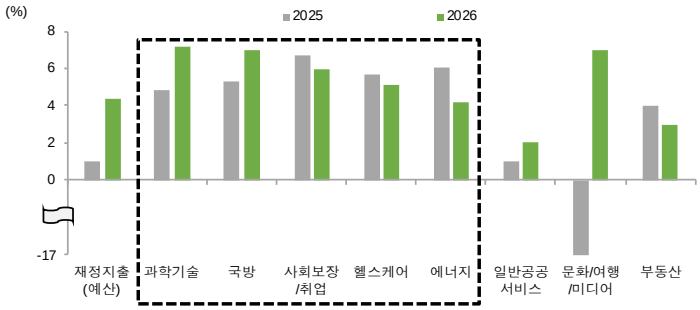
2026년 3월 양회, 정부업무보고서에서 AI에 기반한 '지능형 경제' 첫 언급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재정수입 감소하나,
과학기술/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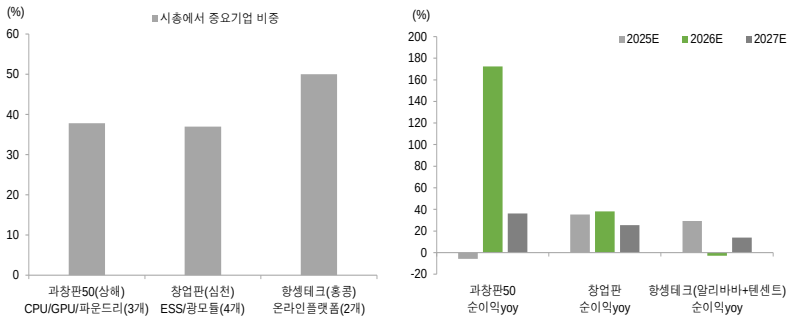
2026년 재정지출 예산은 과학기술, 국방, 사회보장, 에너지에 쏠림 – 내수 비중은 낮음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정부 정책 주도 산업은
첨단기술/에너지-
과창판50, 창업판
추종 인덱스 ETF 긍정적

중국 과창판50은 반도체(CPU/GPU/파운드리), 창업판은 광모듈/ESS, 항셍테크는 온라인플랫폼 기업 비중이(시가총액) 높음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양회, 'AI 지능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분석의 기본 가정

- 중국 정부 재정수입 감소 → '과학기술/에너지' 투자에 선택과 집중
- 중국 정부 내수 부양정책 지속하나, 가계소비 여전히 지지부진

중국 양회, '내수'가 아닌 'AI'에 올인 – '지능형 경제' 첫 언급

3월초 양회, 정부업무보고서/15차5개년 내용 점검

지난 3월 3일~12일 진행된 '양회(정협, 전인대)'에서 2026년 재정정책 및 경제지표 '목표치' 발표(5일 전인대 업무보고내용), 그리고 '15차5개년 계획(2026년~2030년)' 최종안을 통과(13일 신화사 발표)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2026년 중국 정부가 '내수(부동산/소비)'를 좀더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내수 진작'을 1순위로 올렸고, 중국 고정자산투자 지표가 지난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정부 2026년 재정예산 및 연간/5년간의 목표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2026년 재정예산에서 '과학기술/에너지' 투자 확대 -연간/5년간의 목표치도 상향조정

결론적으로 '내수'가 아닌 'AI'에 올인이다. 중국 정부는 AI에 기반한 '지능형 경제(smart economy)'로의 도약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사실상 2025년 재정운영 결과를 보더라도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과학기술 산업은 놓지 않았다. 향후 5년은? 가계 소비율 목표치, '이구환신' 등을 통한 내수 진작 정책은 가져가나, 결국 AI로 인한 실업 등 사회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최대한 과학기술 자립자강(2035년 지능형 경제)을 이루겠다는 뜻이 강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및 2030년 중국 '쌍탄소 정책(2030년 탄소피크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목표치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반도체 산업은 경쟁과 집중도가 높아지고, 광모듈/ESS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 2026년 3월 양회, 정부업무보고서에서 AI에 기반한 '지능형 경제' 첫 언급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Ⅰ. 중국 재정예산/목표치 비교 –'과학기술/에너지' 집중

(1) 2026년 재정지출, 과학기술/사회보장(취업)/에너지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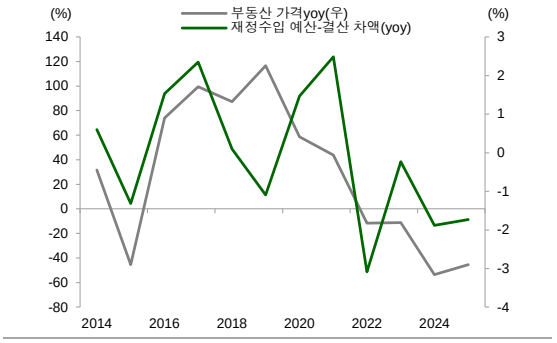
2025년 재정수입 감소-
과학기술/에너지
재정지출 증가

지난 12일 전인대에서 최종 통과한 2025년 재정결산 및 2026년 재정예산을 점검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로 지방정부 등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학기술/에너지' 분야의 재정 지출은 늘었다. 2025년 실제 재정수입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렇다 보니 재정지출도 감소했다(재정지출 증가율 예상치 +4%, 실제치 +1%). 그런데 재정지출이 줄어든 분야는 대부분 '내수' 산업이고, 과학기술/국방/사회보장(취업)/헬스케어/에너지 산업은 증가했다.

2026년 재정예산에서
과학기술, 에너지
재정지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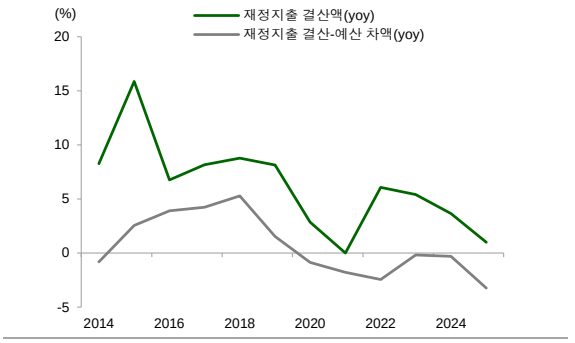
2026년 재정예산 상황도 2025년과 같다. 재정지출 예산은 30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4%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6년 재정지출 예산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산업은 과학기술, 사회보장(취업), 에너지이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내수(소비) 산업은 예상보다 집행 비중이 낮다.

도표 2. 중국 재정수입 감소, 부동산 경기 둔화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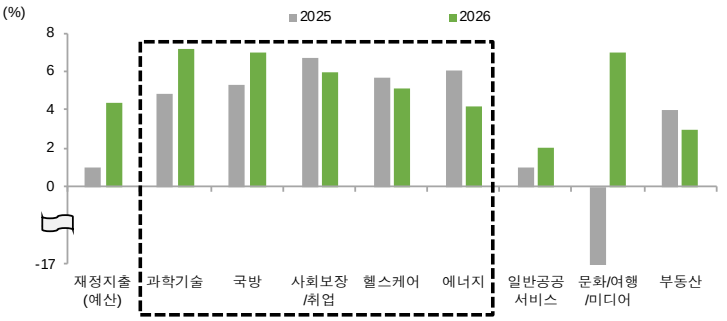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2025년 중국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감소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2026년 재정지출 예산액 기준으로, 과학기술, 국방, 사회보장, 에너지 높은 수준-내수 관련 예산액은 낮은 수준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2026년/5개년 계획 목표치 비교 – 과학기술, 에너지 강조

연간/5개년 계획 목표치-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신규 편입

2026년/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매크로/산업 목표치 기준을 살펴보면, 다른 지표들은 크게 변한게 없는데 '에너지' 목표치 기준이 변경됐다. 2026년에는 기존에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축량'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으로 변경됐다. 5개년 계획에는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신규로 편입됐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5년 단위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간 단위 목표치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쌍탄소(2030년 탄소피크 및 2060년 탄소중립)' 정책이 현실적인 목표치 수립단계로 들어갔다는 판단이다.

비화석에너지 소비 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화석에너지는 에너지 소모/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반면, 비화석에너지(태양과, 풍력, 수력, 원자력)는 사용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조/생산/채굴 단계에서는 일정부분 에너지 소모/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간 목표치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기준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비화석에너지 소비를 좀더 늘릴려는 목적이며, 이는 5개년 계획에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치를 신규로 편입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도표 5. 2026년 정부업무보고서 매크로 목표치

(단위:%/위안)

구분		2026	2025	2024	2023	2022
경제 지표 목표치	GDP(yoy)	4.5~5.0	5.0	5.0	5.0	5.5
	CPI(yoy)	2.0	2.0	3.0	3.0	3.0
	도시신증취업인수	1,200만명이상	1,200만명이상	1,200만명이상	1,200만명이상	1,100만명이상
	실업률	5.5	5.5	5.5	5.5	5.5
재정 정책	기조	더욱 적극적 재정정책 지속	더욱 적극적 재정정책 실시	적절히, 효율 높임 적극적 재정정책 실시	효율 높임 적극적 재정정책 실시	적극적 재정정책 효율 제고
	재정 적자율	4.0	4.0	3.0	3.0	2.8
	재정 적자규모	5.89조	5.66조	4.06조	3.88	3.37
	중앙정부(예산) 투자액	0,755조	0.735조	0.7조		
	초장기특별국채 (첨단기술/금융/소비)	1.3조	1.3조	1.0조	-	-
	특별국채 (상업은행자본금 보완)	0.3조	0.5조	-	-	-
	지방정부특별채 (음성부채차환/인프라)	4.4조	4.4조	3.9조	3.8조	3.65조
통화 정책	기조	적절한 완화 통화정책 지속	적절한 완화 통화정책 실시	안정적 통화정책 적절히, 정확히	안정적 통화정책 정확히	안정적 통화정책 강도 확대
	M2/사회융자	사회융자규모, 통화공급 증가 경제성장, 가격 예상목표치부합	사회융자규모, 통화공급 증가 경제성장, 가격 예상목표치부합	사회융자규모, 통화공급량은 경제성장, 가격 예상목표치 부합	광의통화공급량과 사회융자 증가속도는 명목경제성장률 부합	신증대출규모 확대, 통화공급량/사회융자는 명목경제성장률 부합
에너지	GDP단위당 탄소배출(에너지소모량)감축	3.8	3.0	3.0	3.0	3.0

자료: 전인대 업무보고 내용 취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15차5개년 계획' 목표치

구분	지표		2020년	14차5개년	2025년	15차5개년
경제 발전		GDP성장률(yoy,%)	2.3	합리적구간 유지	5	합리적구간 유지
		노동생산성(yoy,%)	2.5	>GDP성장률	6.1	>GDP성장률
		도시화율(yoy,%)	60.6	65	67.9	71
창조 혁신		R&D(yoy,%)		>7	9.1	>7
		만명당 발명특허 보유량(건)	6.3	12	16	2030년>22
		GDP에서 디지털경제산업부가가치비중(%)	7.8	10	10.5	2030년 12.5
민생 복지		도시실업률(%)	5.2	<5.5	5.2	<5.5
		도시인당가처분소득(yoy)	2.1	=GDP성장률	5	=GDP성장률
		생산가능인구평균교육연수(년)	10.8	11.3	11.3	2030년 11.7
		천명당의사보유수(명)	2.9	3.2	3.1	2030년 3.7
	신규	천명당간호사보유수(명)			4.3	2030년 5.1
	신규	양노기관보호침상점유율(%)			68	2030년 73
	신규	3세이하 영유아 입소율 제고(%p)				5년간 +6%p
친환경		GDP단위당 에너지감축량(%)	5년간13.5			
		GDP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 감축량(%)		**5년간18**	**5년간17.7**	**5년간17**
	신규	**총에너지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비중(%)**			**21.7**	**2030년 25**
		도시공기질량 양호한 일수비율(%)	87	87.5		
	신규	도시 PM2.5농도(㎍/㎥)			28	2030년<27
	신규	우수수질 비율(%)			80	2030년 85
		산림지대 비율(%)	23.2	24.1	25.1	2030년 25.8
안보 보장		식량생산능력(조g)		>1.3	1.39	2030년 1.45
		에너지종합생산능력(억톤,표준석탄)		>46	51.3	2030년 58

자료 : 신화사<15차5개년 강령>,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 목표 제시

또한 '15차5개년' 18가지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 목표를 확실히 제시했다. 그리고 '중국 현대화 건설 새로운 국면 돌파'를 위한 7가지 발전목표에도 '과학기술 자립자강' 계획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 5년간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전분야의 자급률 100%를 목표를 가지고 기술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7. 중국현대화 건설 새로운 국면 돌파, 7가지 발전목표

순위	15차5개년	14차5개년
1	하이엔드급 경제발전 현저한 성과 취득– 가계소비율 현저히 제고	경제발전 새로운 성과 취득
2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 대폭 제고**	-
3	전면적 심화 개혁의 돌파구 마련	개혁개방 새로운 단계 돌입
4	사회문명수준 제고	사회문명 새로운 단계 제고
5	가계생활수준 지속적 제고	생태문명건설 새로운 진전
6	아름다운 중국건설에 새로운 발전 취득	민생복지 새로운 수준 도달
7	국가안보 공고히 함	국가치안기능 제고

자료 : 신화사<15차5개년 강령>,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14차 5개년 vs 15차 5개년, 18가지 계획 내용 비교

15차5개년	강도	14차5개년
1. 중국현대화 건설 새로운 국면 돌파	-	1.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새로운 단계 개척
2. 현대화산업시스템 건설, 실물경제기초 공고	▲	3. 현대화산업시스템 가속화, 장대한 실물경제기초 공고
3. 하이엔드급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신품질생산력 이끔 (순위는 하락했으나, 단어의 강도가 높아짐)	▲	2. 혁신적 발전 견지, 전면적 새로운 이점 구축
4.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및 스마트화발전 수준 제고	▲	5. 디지털발전 가속화, 디지털중국 건설
5. 강대한 내수시장 건설 및 새로운 발전 수준 제고	▼	4. 강대한 내수시장 형성 및 새로운 발전 수준 구축
6. 하이엔드급 사회주의시장경제시스템 가속화	-	6. 하이엔드급 사회주의시장경제시스템 구축
7. 하이엔드급 대외개방 확대, Win-Win 시스템 건설	▲	12. 하이엔드급 대외개방 실행, Win-Win 시스템 개척
8. 농업현대화 가속화, 농촌 부흥 건립	▼	7. 농업발전 지속, 농촌 부흥 전면적 추진
9. 지역경제 최적화, 협력 발전 추진	-	8. 신형도시화전략 구축 및 도시화발전 수준 제고
		9. 지역경제 최적화, 협력 발전 추진
10. 민족문화혁신 활력 진작, 사회주의문화 번영	-	10.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국가문화소프트웨어 제고
11. 인구발전전략 구축 및 하이엔드급 인구발전 추진	▲	13. 국민소양 제고, 국민 전면적 발전 추진
12. 민생 보장/개선 가속화, 공동부유 추진	▲	14. 민생복지 추진, 공동 건설/법치/공유 제고
13. 경제사회발전 친환경 전환 가속화	▼	11. 친환경발전 추진, 인간과 자연과 공생 추진
14. 국가안보시스템 추진 및 하이엔드급 안보 건설	-	15. 발전과 안보를 통합하여 하이엔드급 안보 건설
15. 건국100주년 목표를 실현, 하이엔드급 국방/군대 현대화	-	16. 국방/군대 현대화 가속화 및 부국/강군 실현
16.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시스템 구축	-	17.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시스템 구축
17. '일국양제'를 통한 조국통일 추진	-	18. '일국양제'를 통한 조국통일 추진
18. 계획을 강화하여 보장 실현	-	19. 계획을 강화하여 보장 실현

자료 : 신화사<15차5개년 강령>,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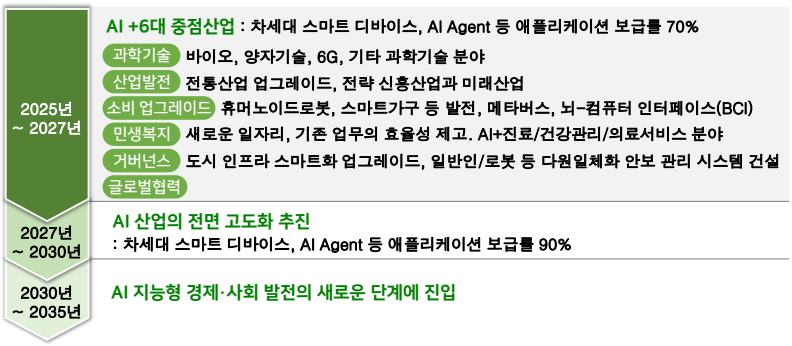
Ⅱ. 중국 양회, 'AI 지능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1) 'AI 지능형 경제', 첫 언급

중국 양회, 처음으로 'AI 지능형 경제' 언급

2026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처음으로 AI에 기반한 '지능형 경제'를 언급했다. 지능형 경제란(smart economy)? 중국 발개위 소장이 밝혔듯이, AI를 핵심엔진으로 한 신형 경제모델로 전면적인 생산/분배/교환/소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는 지난 8월에 발표된 AI+ 3단계 정책, 2027년/2030년/2035년 장단기 로드맵의 최종적인 경제 매커니즘이다. 즉 경제와 사회 전 분야의 AI 기술 적용 수준을 각각 70%, 90%, 100%로 정한 것이다.

도표 9. 2025년 8월에 발표한 'AI+ 행동시행 의견'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I 지능형 경제' 1단계 중점산업은 '신품질생산력'

2027년 'AI 지능형경제' 1단계 중점 산업은 바로 신품질생산력(미래산업+신흥산업)이다. 신품질생산력은 202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언급한 전략적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말한다. 2026년/5개년 계획 신품질생산력 산업 구성이 일부 다를 수 있는데, 기간 단위 중점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2026년에는 신흥산업이 신흥지주산업으로 격상됐다는 점, 새롭게 추가된 미래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저공경제, ESS, AI로봇 산업이다.

도표 10. 2026년 신품질생산력 산업

신품질생산력	2025	2026
미래산업	원우주, AI, 양자정보, 휴머노이드로봇, BCI, 바이오제조, 공중과학, ESS	**미래에너지**, 양자과학, embodied AI[휴머노이드로봇], Brain-Computer Interface[BCI], 6G
신흥산업→ 신흥지주산업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자동차, 친환경,민용항공, 해양장비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저공경제, ESS, AI로봇**

자료 : IB기관 보고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5개년 계획 신품질생산력 산업

신품질생산력	14차5개년	15차5개년
미래산업	AI, 양자정보, 반도체, 생명건강, 뇌과학, 바이오, 공중과학, 심해	양자과학, 바이오제조, **수소에너지와 핵융합에너지** embodied AI[휴머노이드로봇], Brain-Computer Interface[BCI], 6G
신흥산업	차세대 IT,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자동차, 친환경,민용항공, 해양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공경제**

자료 : IB기관 보고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I 지능형 경제' 2단계~3단계 중점산업은 '제조2035'

'AI 지능형 경제' 2단계~3단계 중장기 과학기술 중점 정책은 '제조2035(2026년~2035년)'이다. 2015년 5월 '제조2025(2016년~2025년)'가 처음 발표됐을 시 3단계(30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제조2035(2026년~2035년)'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난 12월 30일 국가제조강국전설전략자문위원회의 〈중국제조업중점영역기술혁신백서 (2025년)〉 내용을 기초로 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혁신백서'에 따르면 산업별 구체적인 목표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2035년까지 단계별 산업발전 계획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도표 12. 중국 정부, 2035년까지 단계별 산업발전 계획

자료 : 기술혁신백서(2025),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사회보장지출 확대 – AI로 대체되는 일자리 보상체제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AI로 대체되는 일자리 보상체제 언급

2026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처음으로 AI로 대체되는 일자리 보상체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명시했다. 즉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보상 및 취업/창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 1년~5년 50%에 달하는 사무직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글로벌 9,200만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고, 1.7억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새로운 일자리가 집중되는 지역과 산업은 결국 AI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오는 2030년 이전 AI와 로봇만으로 차량을 생산하는 다크팩토리(Dark Factory·어둠 속 공장)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폭스콘 심천/정주 지역의 다크팩토리에서 설비 유지 기술공은 50명에 그치며, 기존 인력감원이 85%를 초과한다.

중국 정부 일자리 보장체제
1)일자리 관련 통계 지표
2)직업능력은행 제도
3)기술전환사회완충펀드

중국 정부는 AI로 대체되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취업)관련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모니터-조기경보-대책' AI 취업리스크 방어시스템을 만들어 제조/금융/물류/서비스 등 AI로 인한 인력대체률, 실업 지수 등을 만들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직업능력은행' 제도, 기술전환사회완충펀드(생산성 제고 및 인력 감축으로 인해 이익이 증가한 기업 중심) 등 AI로 인력을 대체하는 기업들을 주축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3) 비화석에너지 소비 UP→석유화학 구조조정/ESS 설비용량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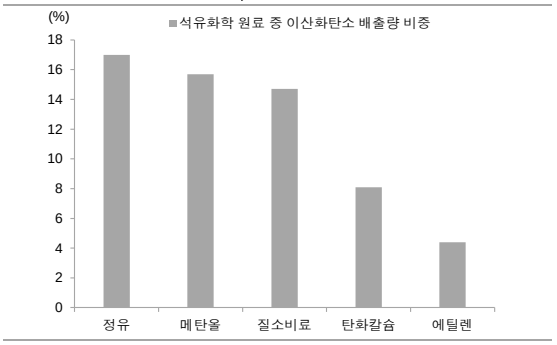
2026년/5개년 목표치에서 비화석에너지 소비 강조

2026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서와 5개년 계획 목표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및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치가 처음으로 편입됐다. '쌍탄소(2030년 탄소피크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 수립 단계로 들어갔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강화 및 비화석에너지 소비를 늘리기 위한 ESS 설비용량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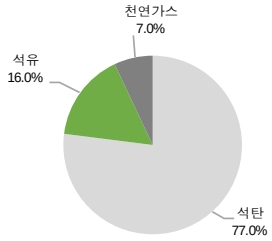
우선 정부 목표치에서 GDP단위당 탄소배출량 감축치를 연간 3.8%, 5년간 17.7%로 제시했다. 제조산업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큰 석유화학 업종의 공급측 정책 확대가 예상된다. 석유화학 업종은 2024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 비중이 전체의 13%이다. 2030년까지 목표치를 감안하면(15차5개년 계획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배출량 만위안당 0.65톤) 석유화학 원료별 감축량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3. 중국 석유화학 업종,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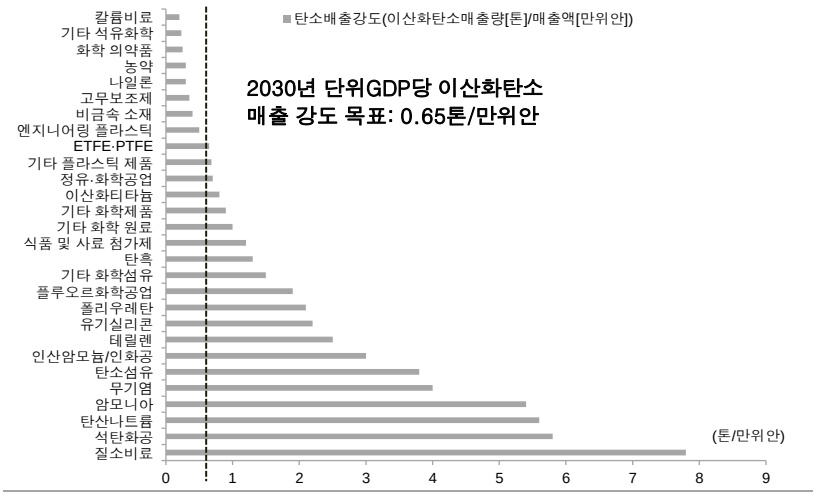
자료 : 생태환경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중국 석탄-석유-천연가스 에너지 탄소 배출 비중 높음



자료 : 생태환경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석유화학 원료 탄소배출강도, 203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원료 공급 구조조정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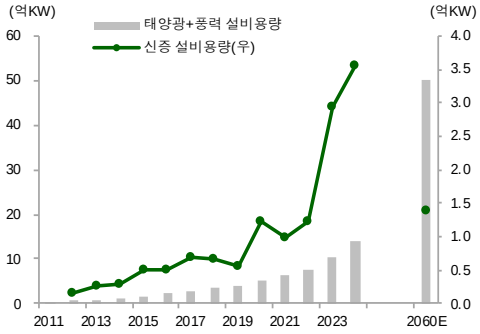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30년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치 25% 달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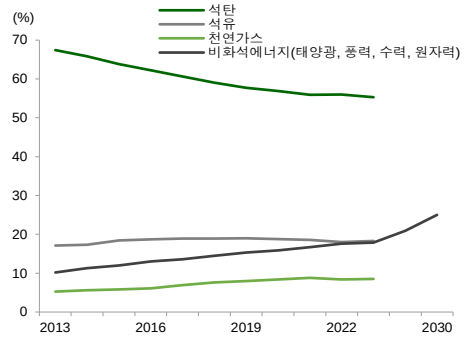
또한 5개년 목표치에서 20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은 25%를 달성해야 한다. 사실상 2030년 비화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태양광+풍력 12억KW)는 2024년(14.08억 KW)에 이미 달성하여 과잉공급 상황이다. 즉 중국은 비화석에너지 소비를 늘려야한다. 여전히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비화석에너지 소비를 빠르게 진작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4년 5월(2024년~2025년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행동 방안)에 3가지 목표치를 이미 제시했다. 2025년/2030년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은 각각 20%, 25%(2025년 20.9%), 둘째, 2025년 비화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9%(2025년 42.9%), 셋째 2025년 신형 ESS 설비용량은 40GW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2025년 기준으로 목표치는 모두 달성했으며, 2026년 목표치는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도표 16. 2030년 태양과/풍력 설비용량 목표치 이미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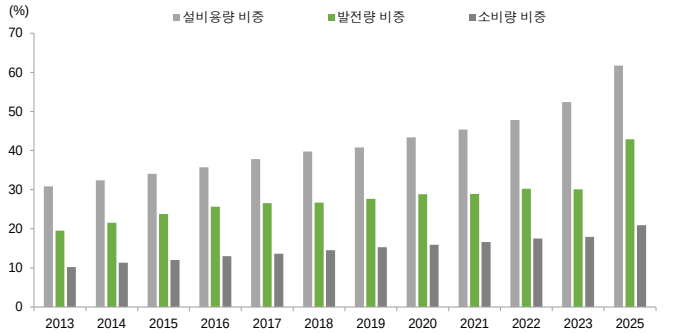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석탄/석유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감소하나, 여전히 높음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2025년기준으로 비화석에너지 발전량/소비량 목표치 달성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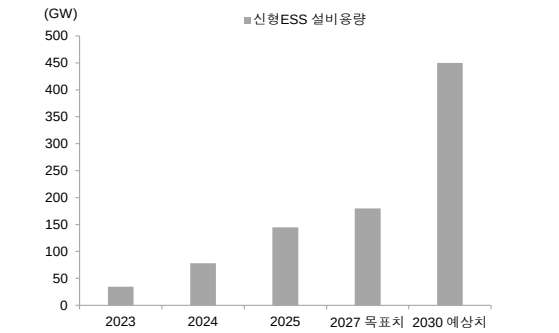
비화석에너지 소비를 늘리기 위한 2027년 ESS 목표치 상향조정

그 중에서 비화석에너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신형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유연성 제고를 위한 설비용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SS 란? 태양광, 풍력의 피크타임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많을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다. 지난 2025년 9월 중국 발개위/에너지국은 2027년 ESS 설비용량 목표치(180GW이상)를 상향조정했다. 2025년 기준으로 신형 ESS 설비용량이 144.7GW인점을 감안하면 2027년 목표치 달성은 충분하다(신형 ESS 신증 설비용량 약 50GW).

'136문건' 발표 이후 신형 ESS 설비용량 확대 1)독립형 ESS 건설 수요 2)AIDC 장착형 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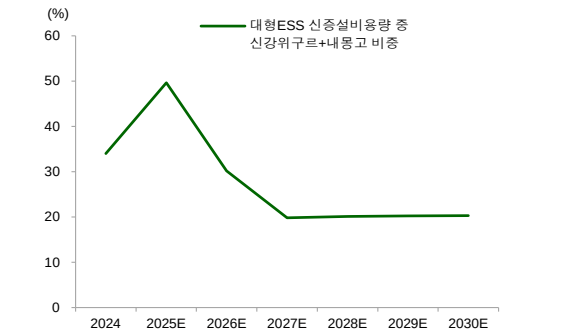
특히 2025년 2월 중국 발개위/에너지국이 발표한 '신에너지 전력시장화 개혁(136문건)' 발표 이후 신형ESS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록 신에너지 발전소 건설시 ESS 의무 장착 제도(태양광 100MW=ESS 10MW)가 사라졌으나, 2025년 신형ESS 신증 설비용량은 1.5배로 오히려 증가했다. 원인은 지방정부가 ESS 수익을 보장하는 '용량 전기요금'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신에너지 발전소에 장착하는 것이 아닌 독립형 ESS를 건설하여 전력망에 접속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주요 수익원은 1)피크(낮·밤)시간에 따른 차익 2)전력망 주파수 조정료 3)용량 요금제(정부 보조금)이다. 따라서 2025년~2028년 대규모 독립형 ESS 설비용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강위구르, 내몽고 지역의 기여율은 40%~50%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동수서산 (东数西算, 동부의 데이터를 서부의 데이터센터로 전송)'정책으로 AIDC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를 신에너지로 사용할 예정이며, 여기에 ESS를 장착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AIDC 100MW당 450~800MWh ESS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AIDC 100MW당 10~20MWh ESS를 장착한다면 2030년 AIDC로인한 ESS 수요는 1,500억 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9. 중국 신형 ESS 설비용량 급증



자료 : CNESA,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중국 북서부 지역의 독립형 ESS 건설 확대



자료 : EESA, 동오증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Ⅲ. 중국 증시, 기술주 추종 인덱스 ETF 주목

(1) 중국 과창판50, 창업판 추종 인덱스 ETF 긍정적

중국 정부 정책 수혜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 과창판50, 창업판 추종 인덱스 ETF 긍정적

이번 '양회'기간 중동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중국/홍콩 증시도 연초대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락에 따라서 반등을 시도하는 업종은 대부분 반도체/광모듈/휴머노이드로봇/ESS 등이다. 정부 정책 주도 산업이다 보니 수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다만 반도체/로봇 등 산업은 기업수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로봇 등 대형 기업 IPO가 진행될 예정이고 하이엔드급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집중투자가 중장기 진행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관심있는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개별 기업 보다는 기술주 추종 인덱스 ETF에 중장기 투자를 추천한다. 단 중국 기술주 추종 인덱스, 대표적인 과창판50(상해,커촹반, 반도체 비중 69%), 창업판(심천, 차스닥/차이넥스트, ESS/광모듈 비중이 높음), 항셍테크(홍콩) 지수는 시장별 업종 비중 차이가 크다 보니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도표 21. 중국 본토/홍콩/한국 상장한 반도체/로봇/제약/ESS 관련 중국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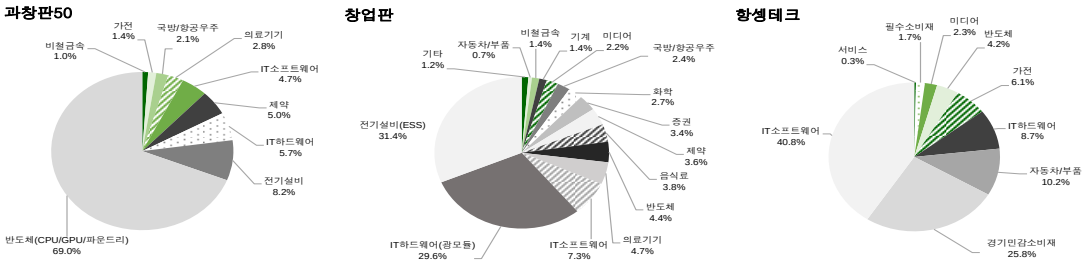
(단위:위안/홍콩달러/원)

구분	종목명		코드	상장일	AUM(억)	종가	3개월(%)	6개월(%)	YTD(%)
지수	TIGER 차이나항셍테크		371160.KS	2020-12-16	1,438	7,960	-9.6	-19.4	-10.7
	TIGER 차이나과창판STAR50		414780.KS	2022-01-13	3,380	11,585	2.4	-1.5	1.2
	KODEX 차이나심천ChiNext		256750.KS	2016-11-08	395	15,850	7.0	12.8	7.2
중국 본토	로봇	CPIC CSI 반도체(장비)	512480.SH	2019-06-12	213.4	1.5	0.2	-3.6	38.9
		Guotai CES 반도체 칩I	512760.SH	2019-06-12	107.5	0.8	-1.4	-6.3	36.2
	AI	E Fund AI	159819.SZ	2020-09-23	157.9	1.5	-3.3	-3.0	55.6
		ChinaAMC CSI AI	515070.SH	2019-12-24	53.5	1.9	-3.3	-3.1	54.8
	반도체	ChinaAMC CSI Robot	562500.SH	2021-12-29	123.1	0.9	-5.5	-13.2	15.5
		Tianhong CSI Robot	159770.SZ	2021-11-08	48.4	1.0	-5.6	-13.3	15.3
	제약	Hwabao WP CSI Medical Service	512170.SH	2019-06-17	259.6	0.3	-5.8	-14.4	-1.8
		Tianhong CNI BIOMEDICINE	159859.SZ	2021-07-07	33.9	0.4	-5.6	-15.1	0.3
	ESS	ICBCCS Guozheng New Energy Vehicle Battery	159840.SZ	2021-08-20	14.9	0.9	3.8	9.6	68.6
		E Fund CNI New Energy Batteries	159566.SZ	2024-02-08	78.1	2.3	4.1	9.2	66.6
홍콩	AI/로봇	글로벌X차이나로봇&AI	3191.HK	2020-08-07	4.0	58.1	-0.5	-3.0	35.9
	반도체	글로벌X차이나반도체	9807.HK	2020-08-07	1.8	7.1	-2.9	-12.6	12.8
	바이오	글로벌X China Biotech	2820.HK	2019-07-24	3.8	67.4	-3.3	-13.5	47.6
한국	IT/AI/ 전기차	TIGER 차이나테크TOP10	0047A0.KS	2025-05-13	669.1	11,750	-2.2	-13.1	-3.2
		TIGER 차이나글로벌리더스TOP3+	0067V0.KS	2025-06-17	550.9	10,980	-3.9	-13.8	-3.6
		TIGER 차이나AI소프트웨어 ETF'	0067YO.KS		219.9	12,245	0.4	0.7	-0.6
		KODEX 차이나테크TOP10	0065G0.KS		695.7	10,000	-9.3	-24.8	-10.2
	AI/로봇	Plus차이나AI테크 TOP10	0047N0.KS	2025-05-13	75.1	11,060	-2.8	-11.9	-4.4
		TIMEFOLIO 차이나 AI 테크액티브	0043Y0.KS		90.2	16,235	16.6	14.0	13.2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0048K0.KS		497.0	9,905	-6.7	-15.6	-16.0
	제약	TIGER 차이나 바이오테크 SOLACTIVE	371470.KS	2020-12-03	388.8	8,490	-1.2	-10.2	2.2
	ESS	KODEX 차이나 2 차전지 msci	419430.KS	2022-03-22	226.2	12,325	13.2	23.9	14.4

주: 기준일=2026년 3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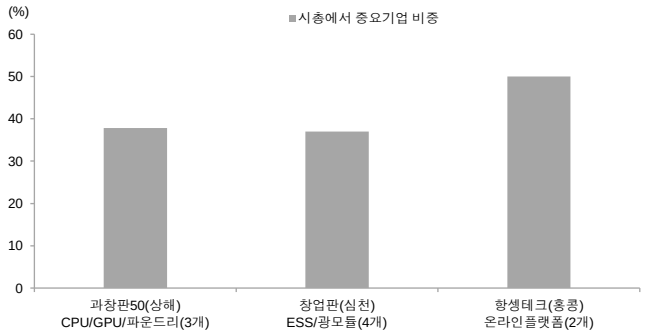
자료: Wind,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중국 과창판은 반도체(CPU/GPU/파운드리) 비중이 69%, 창업판은 IT(광모듈) 및 전기설비(ESS)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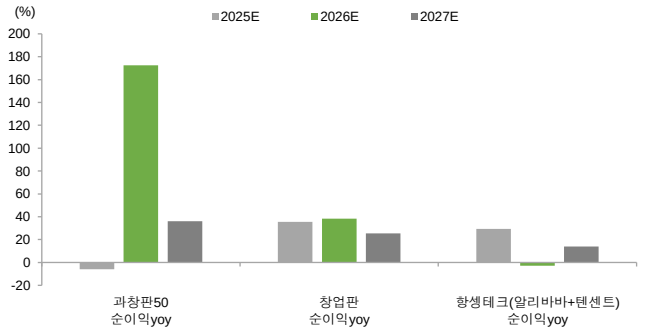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3. 과창판50/창업판/항셍테크 지수별 중요기업 시총 비중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과창판50/창업판/항셍테크 지수 순이익 증가율 예상치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AIDC건설 확대에 따른 반도체/광모듈 수혜 UP

중국 AIDC Capex 투자 더욱 확대→ AI연산력 제고 및 광모듈 수요 크게 증가

중국 정부는 'AI 지능형 경제' 건설을 위한 AI데이터센터(AIDC) Capex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등 중국 대표적인 민간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AIDC 시장규모는 3,000억 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70% 이상), 향후 20%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AI연산력 제고 및 광모듈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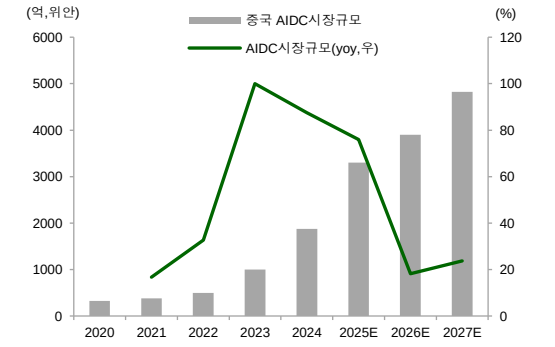
중국 정부, 향후 5년간 HBM 생산 및 EUV 노광장비 자체 개발 집중 예상

2024년 기준으로 중국 AI가속기 국산화율은 25%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HBM 생산 및 EUV 노광장비 자체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최대 DRAM IDM 기업인 CXMT(글로벌 4위)가 IPO 준비중이다. CXMT는 2026년 HBM3 양산 예정이며(월 6만장 규모의 웨이퍼), 2027년에는 최첨단 제품인 HBM3E(5세대)를 출시할 계획이다(삼성·하이닉스와 3~5년 기술 격차). 또한 지난 3월 중국 9명의 반도체 기업 대표가 'KJDB' 과학학술지에 EUV 개발 확대 결의(2028년 생산 목표)를 발표했다. 미국 제재로 인해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수입하지 못함에 따른 기술격차를 해결하자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CPO 등 광통신 기술 발달로 광모듈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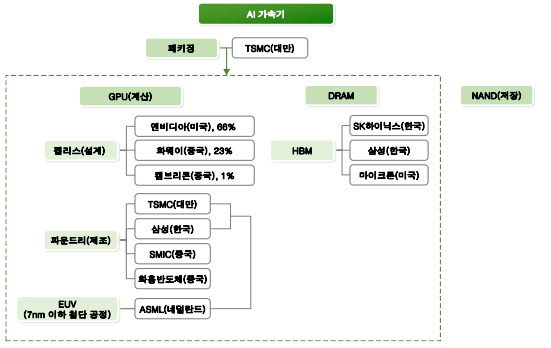
또한 AIDC 건설 확대로 광통신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AI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서버간 데이터 전송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CPO (차세대 광학 패키징 기술) 등 광통신 기술이 발달되면 광모듈 등 부품 수요도 증가한다. 중국 광모듈 기업들은(Innolight, Eoptolink) 글로벌 선두 업체이고,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도 긍정적이다.

도표 25. 중국 AIDC 시장 규모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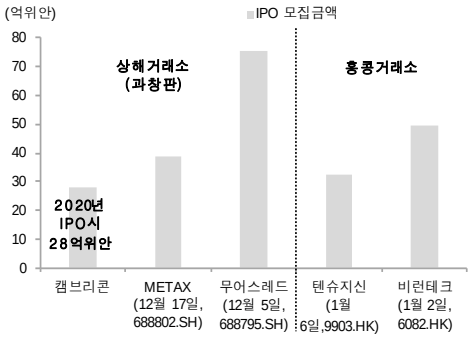
자료 : 중상산업연구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6. 중국 HBM 생산 및 EUV 노광장비 개발에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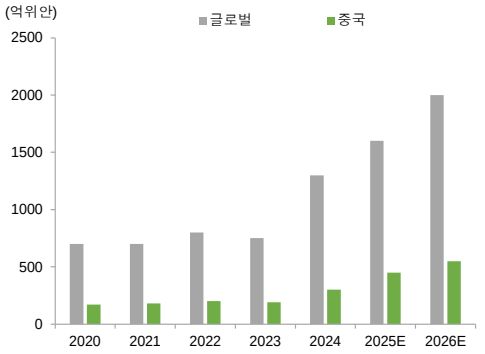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7. 중국 HBM 생산 및 EUV 노광장비 개발에 박차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8. 중국 광모듈 시장 규모



자료 : 화경산업연구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9. 중국 반도체/광모듈 선두기업

(단위:억위안/억홍콩달러)

구분	종목명	상장거래소	코드	상장일	시가총액	주가수익률(%)		12MF PER	순이익(yoy,%)		
						3 개월	YTD	(배)	2025	2026E	2027E
CPU	하이광정보	과창판	688041.SH	2022.8.12	5,083	0.5	-2.5	110.4	31.7	82.8	43.3
GPU	캠브리콘		688256.SH	2020.7.20	4,322	-21.5	-24.5	85.9	흑전	136.0	72.0
	METAX		688802.SH	2025.12.17	2,424	-3.5	3.1	1610	43.9	119.1	728.3
	무어스레드		688795.SH	2025.12.5	2,625	-10.5	-6.0	-	-	21.0	137.6
	텐슈지신	홍콩	9903.HK	2026.1.8	654	-	-	-	-	-	-
	비렌테크		6082.HK	2026.1.2	715	-	-	-	-24.3	63.7	100.3
파운드리	SMIC	과창판/홍콩	688981.SH/0981.HK	2020.7.16	7,752	-20.1	-20.6	115	36.3	22.7	21.2
	화홍반도체	홍콩	1347.HK	2014.7.16	1,445	15.9	11.4	91.5	-5.6	239.9	45.9
	넥스칩	과창판	688249.SH	2023.5.5	561	-17.5	-15.4	46.5	32.2	69.7	27.8
반도체장비	나우라	심천	002371.SZ	2010.3.16	3,233	-1.3	-1.3	46.3	26.1	34.4	28.1
DRAM	CXMT	비상장	2026년 IPO예정(2025년 12월 심사 마침, 과창판)						흑전	-	-
NAND	YMTC		2026년 2분기 증감회 과창판 IPO 신청 예정						30~50		
광모듈	Innolight	창업판	300308.SZ	2012.4.10	6,824	-4.6	-2.0	30.2	108.8	103.3	37.7
	Eoptolink		300502.SZ	2016.3.3	4,542	0.5	3.8	47	228.3	84.1	31.1

주: 기준일=2026년 3월 27일

자료: Wind,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3) 2026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및 IPO 가속화

2026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급증 및 IPO 가속화

중국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宇树科技, Unitree)는 조만간 IPO를 진행할 예정이다(과창판). 유니트리는 2025년 기준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5,500대로 글로벌 1위이며, 매출액/순이익 증가율(yoy)은 각각 +335%, +674%(2024년부터 흑자전환)이다. 그 다음으로는 애지봇(智元机器人, Agibot)이 5,168대를 출하하며 중국내 2위이다. 중국 산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1.44만대이고, 2026년대는 몇배 이상 급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트리, 애지봇, 유비테크(优必选, UBTECH)는 이미 만대 이상으로 목표치를 밝혔다. 또한 2026년에는 유니트리를 포함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의 IPO 가속화가 예상된다. 2025년 74개 로봇 기업이 IPO를 신청했고, 그중 2026년 3월 5일 기준으로 16개 기업이 IPO를 진행했다(과창**판** 2, 홍콩 11, 북경 2, 나스닥 1).

도표 30.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선두기업

(단위:억위안)

종목명	상장거래소	코드	상장일	시가총액	주가수익률(%)		12MF PER (배)	순이익(억위안)		
					3개월	YTD		2025	2026E	2027E
유비테크	홍콩	9880.HK	2023.12.29	456	-16.9	-27.9	-	-8.8	-5.5	-2.1
유니트리	2026년 3월 20일 상해거래소 IPO 신청 승인 받음(과창반)							6		
러쥐로봇	2026년 3월 증감회 IPO 준비 시작									

주: 기준일=2026년 3월 27일
자료: Wind,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4) 중국 ESS, 비화석에너지/AIDC 확충으로 수요 증가

중국 ESS, 비화석에너지/ AIDC 확충으로 수요 증가

2025년 2월 '136호'문건 발표, 2026년 '양회'에서 강조한 비화석에너지 소비 증가 및 AIDC 인프라 건설 확대로 ESS 설비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SS는 크게 배터리팩, 에너지 저장 인버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가비중은 각각 60%, 20%, 10%이다. 독립형 ESS 건설 및 AIDC 장착형 ESS 수요 증가로 관련 기업 수혜가 예상된다.

도표 31. 중국 ESS 선두기업

(단위:억위안)

구분	종목명	상장거래소	코드	상장일	시가총액	주가수익률(%)		12MF PER (배)	순이익(yoy,%)		
						3개월	YTD		2025	2026E	2027E
배터리제조	CATL	차스닥	300750.SZ	2018.6.11	374	11.2	13.3	20.1	26.3	22.2	22.8
시스템통합	양광전원	차스닥	300274.SZ	2011.11.2	181	-9.8	-4.5	22.4	38.9	21.7	15.8
운영서비스	해박사창	과창판	688411.SH	2025.1.27	273	6.0	16.0	24.4	46.5	128.2	51.1

주: 기준일=2026년 3월 27일
자료: Wind,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